

이야기 7: 왕비 에스더

주제말씀
[에스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구제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이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아름답게 꾸민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어요.

궁전에는 모르드개라는 이스라엘 관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르드개가 자기 딸처럼 길렀어요.

에스더도 왕비를 뽑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예쁘게 꾸민 처녀들이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갑자기 왕의 눈이 반짝 빛이 났어요.

왕은 수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관을 씌워 주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예요. 그리고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모두가 새 국무총리인 하만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을 보고도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 왕비를 키운 모르드개였어요.

모르드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가지 일을 꾸몄어요.

하만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은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온 나라에 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옷을 찢으며 슬프게 울었어요.

모르드개도 대궐 문에 앉아 울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왕의 명령을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았던 에스더는 걱정이 되어 모르드개에게 시녀를 보냈어요.

모르드개가 시녀에게 말했어요. “왕비가 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를 위함이라고 전해주세요.”

시녀는 모르드개가 한 말을 에스더왕비에서 다 말했어요.

에스더가 시녀를 통해 모르드개에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해주세요.

나도 먹지 않고 기도한 후에 죽을지라도 왕에게 나아가 말하겠어요.”

3일 후,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매우 반가워했어요.

왕은 에스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 했어요.

하만은 왕비가 잔치에 초대하자 더욱 교만해졌어요. 왕은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기분이 좋아져서 왕비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바로 그 때,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폐하, 저와 저의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 놓은 큰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왕은 옛날에 모르드개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새로운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다시 소원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취소해 주세요.”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왕비가 된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에스더 4:16)

죽으면 죽으리이다



활동 1.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활동 2.

보석 모양을 오려서 에스더 왕비의 왕관에 있는 같은 모양에 알맞게 붙여서 꾸며주세요.

준비물: 풀, 가위.



